

KTX 완전개통 세달 동대구역 가 보니

富 유출도 초고속... 대구는 빈혈증세

서울로... 부산으로... 의료·쇼핑·교육 '빨대 효과' 현실로

오는 2014년 호남고속철도의 1단계(용산~광주) 완공과 함께 관광·유통·의료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각 부문에서 광주와 수도권 간의 본격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광주일보보는 지난해 10월 28일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는 동대구역을 찾아 3개월간의 변화상을 추적해왔다. 광주·전남의 타산지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2면>



하루 평균 열차 승객이 5만명에 달하는 대구 동대구역은 지난해 10월28일 경부고속철도 2단계(대구~부산) 개통 이후 매년 10%씩 증가했던 이용객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대구=윤현석기자 chadol@

지난 25일 찾은 대구시 동구 신암4동에 위치한 동대구역에는 수 천명의 이용객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동대구역이 동남권의 중추역이면서 경북 각 지역의 집적지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 평균 열차 이용객만 5만명에 달하고, 고속철도(KTX)가 1분~5분 간격으로 배차돼 역내 식당과 마트 등도 오후 1시가 지난 시간이지만 손님마이에 분주했다.

그러나 최근 경부고속철도 2단계(대구~부산)의 개통과 함께 동대구역의 승객은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 이순호 차장은 "지난 2004년 개통과 함께 4시간 30분이던 서울~대구가 1시간50분으로 단축되면서 이용객은 매년 10% 이상씩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그러나 2단계가 개통되면서 포항과 경주 등으로 곧바로 갈 수 있어 집산기능이 약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KTX의 편리함과 함께 대구의 경우

가까운 공항이 없고 고속버스터미널이 분산돼 불편하다는 지역적인 여건 탓에 공항·고속버스 승객을 상당부분 흡수했기 때문이다.

평일이어서인지 KTX 승객들은 회사원이나 방학중인 대학생, 주부 등이 대부분이었다. 회사원 서모(47)씨는 "거라쳐 직원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매일 2~3차례 서울로 출장을 간다"고 말했다.

주부 정모(45)씨는 올해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입학한 딸과 함께 서울에 가기 위해 동대구역을 찾았다. 정씨는 "딸의 옷이며 잡화 등 이것저것 장만할 것도 있고, 성형외과에도 들러

볼 생각"이라며 "딸이 서울에서 수술하겠다고 고집하니 비싸지만 어쩔 수 없이 않느냐"고 반문했다.

서울에서 대구를 찾은 채모(34)씨는 KTX렌터카를 사용하기 위해 문의하고 있었다. 그는 "한 달에 2~3번 출장을 오고 그 때마다 20~30만원 정도 쓴다"며 "살만한 물품이나 돌아다닐 만한 곳이 많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역내 열차 승객들로 번잡했으나 역 앞 택시승강장에는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가 200여 m 이상 늘어있었다. 역 주변에도 오르내리는 승객들을 상대로 한 삼겹, 음식점 등 상업 및 유통 시설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특히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한 병원, 백화점 내 명품점 등 고가의 서비스업 이용자는 KTX 개통으로 오히려 서울과 부산으로 유출되면서 쇠락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대구경북연구원 등의 분석이다. 대구 시민들의 수도권 의료서비스 이용은 83%나 늘었다는 통계도 있다.

대구시내 x성형외과 간호사 최모(27)씨는 "문을 닫고 수도권 병원의 월급쟁이로 전락하는 지역 의사들이 꽤 있다"며 "백화점 세일 할 때면 친구들과 서울 구경에 나선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대구=윤현석기자 chadol@

이광재·서갑원, 지사·의원직 상실

4월 재보선 판도 출렁...박진 의원은 유지

이광재 강원지사와 서갑원 민주당 의원(순천)이 대법원의 원심 확정으로 도시사직과 국회의원직에서 각각 물러나게 됐다. <관련기사 3면>

반면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벌금 80만원의 원심이 확정되면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천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공무원임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면서 취임 7개월 만에 도시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도 이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의원에게 벌금 1천200

만원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반면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민주당 서갑원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4·27 재보선이 실시되는 지역은 경기 성남 분당을, 경남 김해 을, 전남 순천 등 국회의원 선거 3곳과 강원도지사, 울산 중구청장, 울산 동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3곳 등 6곳으로 늘었다.

이 밖에도 한나라당 공성진(서울 강남을), 환경병 의원(서울 노원갑)과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전완준 화순군

수 등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들이 오는 3월31일 이전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현직을 상실하게 될 경우 4·27 재보선은 최대 10곳에서 치러져 '미니 총선'의 성격이 짙을 전망이다. 거물급 인사들의 출마와 야권 연대 등이 맞물리면서 여야 간의 치열한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박연차 게이트'의 주인공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사건은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정·관계 인사들에게 수십억원의 금품을 뿌리고 수백억원의 세금을 탈취한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혐의 가운데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모 월간지 대표로 재직하던 2007년 2월 태광실업과 휴켄스 관련 기사를 잘 써달라며 2만 달러를 건넨 혐의(배임증제)를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출신 이상훈씨 새 대법관 임명 제청



평가를 거쳐 대법관 후보를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법관 후보자는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지난 1983년 판사로 임명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법원장, 인천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이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구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 출신의 이상훈(55) 법원행정처 차장이 내달 27일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했다. <관련기사 5면>

이후 대법원장은 "법원 내의 각계각층의 의견과 대법관제청자문위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법률지식과 판단력, 인품, 도덕성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전남도, 설연휴 24시간 방역체제 가동

다중시설 소독기 설치 등 구제역·AI 차단 총력

민족대이동이 이뤄지는 설 연휴가 구제역 전남 유입 차단 최대 고비(광주일보 27일자 1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자 전남도가 연휴 기간 24시간 방역체제를 구축, 구제역 차단은 물론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는데 총력을 쏟기로 했다.

전남도는 27일 설 명절을 맞아 귀향객들이 물리는 22개 시·군 버스터미널과 기차역, 여객터미널 등 다중집합시설에 발판소독소 1072개를 설치하는 등 방역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농장 입구에 출입통제 표지를 하고 읍·면 소재지와 마을입구 등에 홍보 현수막 464개를 부착해 고향을 찾는 지역민들의 축산 농장 방문을 자제하도록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관내 310여명에 달하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이동 통제 초소도 연휴 기간 동안 24시간 운영키로 했다.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농장 입구 생석회 살포 및 농장 안팎 매일 소독 ▲외부인 농가 출입 통제 ▲해외여행이나 각종 행사·모임참석 자제 등 5대 행동 지침을 마련, 전달하는 한편, 정부로부터 13만7700마리의 예방 백신을 공급받아 이날부터 무안과 광양 돼지 사육농가에 대한 접종에 들어갔다.

구제역은 지난해 11월28일 경북 안동에서의 심신고가 들어온 이후 27일로 구제역이 61일째를 맞으면서 8개 시·도, 63개 시·군·구에서 발생했고 살처분·매몰 가축이 272만마리를 넘어섰다.

전남도는 아울러 29일 광주에서 열리는 민주노동조합 총회에 농민들이 참여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게호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22개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통해 "민주노동조합 주최로 광주에서 전국 각지의 노조원이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농민들의 참여를 자제하도록 적극 설득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지역 경제·시민사회단체도 민주노동조합의 대규모 광주 집회에 대해 일파 우려를 표명하며 철회를 호소했다.

광주상공회의소와 광주경정자총합회는 호소문을 내고 "민주노동조합의 대규모 결의대회가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남아있는 광주·전남에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며 "설 명절 귀성 및 축산농가 방문 자제 등 전국 국가적으로 방역에 노력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결의대회는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구제역과 AI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국가적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며 "민주노동조합이 전국 노동자들을 동원한 광주 집회는 지금까지 어렵게 구축한 방역체계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구제역 여파 속 전남 한우 소비 크게 늘었다

4개 지역브랜드 판매 18% 증가

구제역 여파에도 불구하고 '녹색한우' 등 전남을 대표하는 한우 제품의 소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농림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리산순한한우·녹색한우 등 전남지역 2개의 광역브랜드와 함평천지한우 등 4개의 지역브랜드 한우의 지난해 판매량은 모두 1만3014마리, 판매금액 957억4000만원으로 전년도 1만1231마리, 811억3000만원보다 각각 15.9%, 18.0% 증가했다.

브랜드별로는 영암매력한우가 판매액 149억7000만원으로 전년도 96억6000만원보다 54.

3%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고, 녹색한우 239억원(53.6%), 담양대소말순한우 71억2600만원(16.3%), 영광청보리한우 78억3000만원(2.6%), 함평천지한우 154억9800만원(0.5%) 등의 순이었다.

농림 전남본부는 브랜드사업단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혈통·사료·사양을 관리해 1등급 고급육만을 생산·공급한 것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다. 브랜드 전문 판매장과 명품 식당을 겸비한 명품관, 한우프라자, 한우촌을 개설하는 등 유통과정을 줄인 것도 크게 기여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메르세데스-벤츠 광주, 전남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전시장
시승 및 구매 고객님께 소정의 시은품을 증정합니다.

Mercedes-Benz

누군가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거부합니다. 변칙한 판단력과 뛰어난 리더십으로 그들조차 따라오게 만듭니다. 언제나 분명한 자신감으로 세상을 리드하는 나, 신성자동차(주)

전시장 : (062) 226-0001

C-Class는 나를 닮았습니다. *행사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www.gjbenz.com

신성자동차(주) |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1-1 | 대표전화: 062-226-0001 | 팩스: 062-226-0002 | 홈페이지: www.gjbenz.com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 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